



위 · 플랫폼-엘켄템포러리아트센터
건축물 외관 전경
가운데 · 허경애 <N°B1016B>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130cm
2016_아트아이베이2017 출품작
오른쪽 위 · 포토마카오 디렉터
세실리아 호(Cecilia Ho)
아래 · 포토마카오가 개최될
베네시안마카오 전경



ARTAIPEI



건축의 미학적 가치를 알리다

플랫폼-엘,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프랑스 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플랫폼-엘켄템포러리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제35회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수상 및 시민투표로 선정되는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고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플랫폼-엘은 올해 참가한 총 93점의 작품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려한 곡선형의 외관과 비정형의 좁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 측은 “바로크적인 디자인과 기하학적 상징을 재해석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자,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미학적 경제적 가치를 드높였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엘의 건물 외관은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특징적인 패턴인 마름모와 원형을 변형해 조합하고, 3가지 각기 다른 소재의 루버(louver)를 배치하여 세련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담았다.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내부에는 전시 공연 패션쇼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 라이브’ 전시실, 중정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플랫폼-엘은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아메리칸건축상, 이프(IF)디자인어워드 등 다수의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시아의 비전을 새로 쓰다

아트아이베이 2017 10. 20~23

아트아이베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장터다. 1992년 창립 이후 홍콩 및 중화권 전역을 대상으로 열려왔다. 올해 주제는 ‘아시아 비전’. 15개국에서 120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총 3,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62곳이 타이완, 19곳이 홍콩 및 중국 출신 갤러리이며, 25곳이 일본 및 한국, 7곳이 동남아시아 각국 갤러리로 구성됐다. 페어는 총 4개 섹션으로 이뤄진다. 메인 전시섹션은 ‘갤러리스’. 국적에 제한은 없지만 아시아 주요 갤러리가 다수다. 한국은 이화익갤러리가 김창열 이이남 안두진 전현선의 작품을 출품한다. 중국의 베이징코뮌(Beijing Commune)은 2017년 카셀 도큐멘타 참여작가인 허샤오유안(Hu Xiaoyuan), 인체를 활용한 바이오아트로 주목받은 루양(Lu Yang)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미래’와 ‘메이드 인 타이완-젊은 작가 발견’ 섹션은 타이완 자국 및 해외의 젊은작가를 발굴하는 섹션이다. 타이완 외에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의 갤러리가 젊은작가의 개인전 형식으로 부스전시를 준비한다. ‘프론티어’는 전통매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작품에 집중된 섹션. 미디어아트작가 팀랩(Teamlab)의 작품이 대표 출품작이다. ‘퍼블릭’ 섹션의 대형 공공미술 전시도 있다. 올해는 애니 이보노바(Annie Ivonova)가 큐레이터로 참여하여 영상설치, 장소특정적 작업, 퍼포먼스 등을 공개한다.

‘디지털 데이터’ 전문 아트페어 출범

포토마카오 2018. 3. 25~28

내년 3월 아트바젤홍콩 방문을 계획 중인 ‘아트피플’의 행선지에 한 곳이 더 추가될 전망이다. 바로 아트바젤홍콩 보다 이틀 앞서 개막하는 제1회 포토마카오. 사진과 비디오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새로운 아트페어로, 마카오 최고의 랜드마크인 베네시안마카오 호텔 내 13,000㎡ 규모의 전시홀에서 개최된다. 20세기 및 21세기 사진, 비디오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스’ 섹션, 아시아 최초 공개 작업으로 구성된 ‘프리미어’ 섹션, 오리지널 빈티지 사진을 다루는 ‘빈티지’ 섹션, 작품을 구입하면 곧바로 USB에 담아가갈 수 있는 ‘하이 에디션’ 섹션으로 짜여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적극적 판매에 방점을 찍은 것이 핵심 특징이다. 주변국으로 터키가 참여하여 전시홀 안에 대형 규모의 ‘파빌리온’도 연다. KIAF 현장에서 만난 페어 디렉터 세실리아 호(Cecilia Ho)는 “이미 유럽에서는 기업 사옥, 클럽, 쇼핑몰 등은 물론 개인 컬렉터들도 디지털 데이터를 작품으로 소장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사진 전문 아트페어인 파리포토, 비디오 전문 아트페어인 바르셀로나 LOOP의 장점을 합친 혁신적 페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카오와 홍콩, 중국 본토를 잇는 초대형 다리 및 터널 ‘HKZMB’가 내년 중으로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홍콩-마카오를 찾는 세계 미술인, 중국 컬렉터들의 발길이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 채연 기자